

순직 해병 특검과 또 다른 국방부의 숙제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채수근 해병의 순직이 벌써 1년이 됐다. 이제는 군대가 많이 편해졌으리라, 이제는 안전하리라 안심하고 훈련소를 보냈던 장병들의 부모님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도 1년이다. 그동안 해병대 전우회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원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사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며 우리는 이제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담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바로 어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벌써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이다. 담담한 마음으로 품은 희망과 기대는 다시 절대권력 앞에 무력해졌다. 이제 국민이 그 거부권에 거부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들고 일어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 이후 해결해야 할 산적한 군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에 기고문에 다가올 숙제를 적어본다.

2019년 2월 군번, 26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강원도 화천에서 경험한 군대는 또래 친구들이 겪은 군대와 사뭇 달랐다. 무용담처럼 들어온 부조리는 없었고, 오히려 최전방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이라 군대 내 사건사고도 통계상으로 확연히 줄던 시

점이다. 전역을 하던 해에 병장 월급은 40만 원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은 100만 원이 됐다. 군복무 중인 병사는 너나 할 것 없이 군 적금을 들어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을 마련해 전역모를 쓰고 나왔다. 병사의 처우는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바로 군에 남기로 결심한 간부들과 남은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의 입장이다.

국방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안위보다 내 가족, 우리 국민의 안위를 우선시할 결심이 서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병사의 월급이 오르는 동안 간부의 월급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게 현실이다. 절대다수인 병사나 향우 안정성과 명예가 보장된 장교에 비해 부사관의 처우는 처참한 현실이다. 정신편역 시간에 늘 전투와 주특기의 전문가가 부사관이라고 배운 것에 비해 지금은 오히려 장교와 병사 누구도 하지 않는 굵은 일을 처리하는 담당이 하사, 중사 계급의 직업군인이다. 군 관사를 쓰지 못하는 간부들은 급여 또한 가정을 꾸리거나 전역 이후 장래를 설계하기에 빠듯했고 복무 연장만이 살길이다. 그마저도 옛말이고 군 조직이 축소되는 추세로 인해 진급에서 누락 돼 등 떠밀리듯 사회로 쫓겨나는 인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PX에서 면세품으로 생활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으나 모르는 소리다. 병사는 매 끼니 식사가 무료지만 간부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끼니 수대로 계산을

해야만 한다. 훈련과 당직은 어떤가. 짝은 당직과 훈련 및 실상황으로 일상이 비상이고 비정상이지만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가는 인정받지 못한다. '군대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걸 알고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비웃음과 조롱 섞인 목소리에 숨죽이며 듣고만 있는 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수호자다. 그리고 똑같은 국민이다.

예비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비회기를 비집고 찾은 이번 4년차 예비군 훈련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에 유난히도 많이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들과 태권도장 승합차, 택시 등 각종 영업용 차량들이 보였다. 나홀간 이들은 모두 생업을 중단하고 이곳에 모여 훈련을 받는다. 지급되는 훈련여비는 하루에 단돈 8000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활임금과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얼마인가. 예비군 훈련이라는 의무를 다하는 보람과 자긍심으로 통 치기에 영업용 차량을 끌고 이 자리에 와서 멈추는 시간의 보상과 일용직 근로를 하다 의무적으로 묶여있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구도 해주지 않고 있다.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군의 처우는 곧 국방력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도발과 분쟁, 나라를 지켜야 할 영웅들이 군복을 벗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 새벽,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 전국 곳곳이 침수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1년 전처럼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社說

책임만 주고 예산 외면하는 소하천 정비

광주 정비율 11.5%...전국 최저

(79.1%)을 기록한 것과는 극명한 대

비다. 지류나 지천인 소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 돼 왔다. 이런 탓에 소하천 정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던 피해 규모는 2020년 14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16억원과 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소하천 정비가 더디고, 예산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하지 못한 불합리한 정책 탓이다. 소하천이 집중호우시 빗물을 수집하고 조절해 홍수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재정이 열악해 소하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실이 딱하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소하천 정비율은 11.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하천이 밀집한 전남 또한 38.4%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정비율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의 경우 모두 22개의 소하천이 있지만 정비하는데 투입된 기정비는 800만원에 그쳤다. 21개의 소하천이 있는 서울의 기정비가 3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비율

다. 언제부터인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는 일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하천 정비를 권한과 책임만 주고 예산과 인력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홍수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소하천 정비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라고 위함마저 스스로 감수하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목포·신안 통합 소멸위기 막는 길이다

목포시장, 통합 4자협의 제안

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 영역 결과 행정통합 효과로 경제적 파급 등 효과 2조원 대에 이르고 관광객 수도 2027년에 2200만 명으로 예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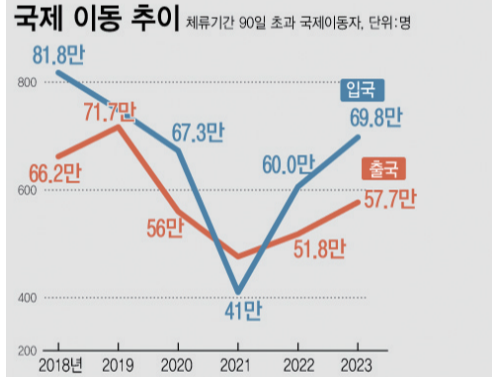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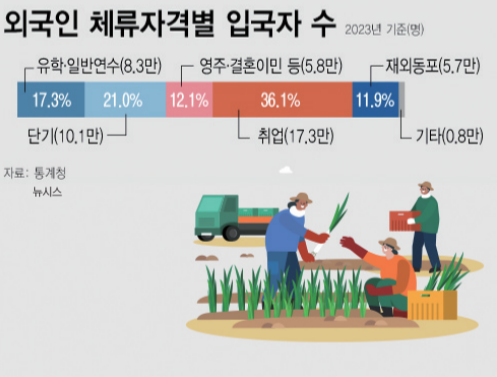
목포와 신안의 행정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1일 목포·신안 통합과 관련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4자 협의체는 신안·무안·영암 지역구 국회의원, 목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신안군수, 목포시장 등이다. 박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중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을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1개 선거구로 편성하고, 목·무·신갑구, 목·무·신을구 등 2개 선거구로 조정해 무안반도 정치통합이 행정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압해도에 있는 현 신안군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청사는 23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 종합센터로서 출장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대규모 친환경 조각시설과 연말 신설될 목포화장장 화장로 1기를 신안 군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발주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청주·청원 통합이 성공사례로 꼽힌다. 주민주도의 통합을 이룬 청주시는 흡수된 청원군에 대한 배려정책을 통해 갈등요소를 최소화 했다. 청주는 통합이후 인구 80만 명을 넘는 광역시급 규모로 몸집을 불렀다. 예산도 2조 3353억원(2019년 기준)으로 전국 220여 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번째로 많다.

앞서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통합시도가 6번이나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와 이해득실만 따졌던 정서가 통합 실패의 원인이었다. 목포·신안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청주처럼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려면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희생과 통합을 이룰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 산업·경제가 집중된 수도권과 견줄 지방 대도시로 성장한다면 목포·신안 통합은 진정한 '지방 자치시대'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서석대



현대 사회에서 영화산업은 자본의 경연장이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다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웨이 오브 워터'는 제작비만 우리 돈으로 6359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3시간인 아바타의 상영시간을 감안하면 1초 분량의 화면을 위해 5억8879만 원을 쓴 셈이다. 복잡한 특수 효과로 유명한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도 5239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5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제작비를 기록했다. 영화 제작이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이이다.

그렇다고 엄청난 예산이 곧 영화의 성공은 아니다. 2012년 디즈니가 만든 '존 카터'는 제작비가 3454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3868억 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손해다.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워터월드'는 1995년 기준으로 2417억 원을 투입해 3647억 원을 버는데 그쳤다. 흥행성적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박스오피스 붐' (box office bomb)이다. 한국에서도 심형래 감독의 '디워'나 김지운 감독의 '인랑' 등이 투입된 자본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반대로 적은 예산으로 성공한 영화도 많다. 우리나라의

'독립영화'들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개봉된 이충렬 감독의 '위당소리'는 1억 여 원의 예산으로 제작됐지만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알렸다. 2012년 개봉된 오명 감독의 '지슬'도 우수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다. 배우 장선과 이승원 감독이 호흡을 맞춘 '소통과 거짓말'에 투입된 예산은 400만 원에 불과하다. '제작비 400만 원으로 완성된 마법 같은 영화'라는 게 영화계의 평가다.

장선의 귀향

광주독립영화관이 13일 배우 장선의 독립영화를 모은 '장선 배우전'을 연다.

이날 '장선 전'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이후 처음 상영되는 '겨울나기'와 함께 오는 31일 개봉되는 '샤인'의 시사회가 열려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영화 '소통과 거짓말'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한 장선은 광주가 고향이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비전노트를 '할매 크러시'라고 했다. '할매'가 되어서도 멋진 배우로 남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독점과 불균형, 획일성 등으로 비판받는 상업영화의 폐해, 그 한 가운데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추구하면서 '할매 크러시'를 꿈꾸는 장선의 귀향이 반갑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